

총신 원격, 2026년 1학기 수강생 모집

100% 비대면 교육, 신학·사회복지학·상담학 학사 학위 취득
다양한 장학 혜택과 합리적인 학비... 연 6회 수시 모집 운영

총신대학교 부속 원격평생교육원(원장 방은영, 이하 총신 원격)이 오는 3월 4일(수)까지 2026년 1학기 2차 학습자를 모집한다. 총신 원격은 시공간의 제

약 없이 온라인으로 총신대학교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원격 평생교육 기관으로, 평생학습 시대에 맞춰 학습자들이 현재의 삶과 소명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도

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어디서나 100% 온라인 수업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육이 빠르게 확산되며 원격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교육 서비스의 중요성도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다양한 학습 환경에 적합한 비대면 교육 방식은 초·중·고 교육을 넘어 대학 및 평생교육 분야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총신 원격의 학점은행제 과정은 출석 부담 없이 정해진 기간 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어 직장인, 주부, 사역자 등 다양한 학습자들이 학업을 병행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학습자의 연령, 최종학력, 보유 학점 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설계 상담을 제공하며,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도 원격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총신대 총장 명의 학사학위 취득 가능

총신 원격에서는 신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등 전공을

학점은행제로 이수하고 교육부 학위 취득 기준을 충족하면 총신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 요건인 총 140학점 이상(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포함)을 충족해야 하며, 이중 신학 전공은 총신 원격에서 105학점, 사회복지학 및 상담학 전공은 84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총장 명의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수준 높은 대학 강의를 온라인으로 수강하면서 학사학위 취득은 물론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 등 향후 진로 확장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한국어교원 2급 등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지원

총신 원격은 학사학위 과정과 함께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국가자격증 과정은 교육원에서 수업을 통해 일정 과목의 학점만 이수하면 국가자격증을 신청해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 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는 청소년·노인·장애인·가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전문 직종이다.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시설은 물론, 다음 세대 사역 및 지역사회 섬김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과정은 한류 확산과 함께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해외 선교 현장이나 다문화 가정 사역을 준비하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 실질적인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연 6회 모집... 2026년 3월 개강 과정 접수 중

총신 원격은 학점은행제 신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및 교양 과목을 평가인정 받아 연 6회 정기 모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2026년 1학기 2차 과정은 3월 5일(목) 개강 예정으로, 3월 4일(수)까지 선착순 접수를 진행한다. 개인별 최종학력과 보유 학점에 따른 학습 계획 상담은 총신 원격 홈페이지

(<https://edu.csu.ac.kr>) 또는 전화로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총신대학교 부속 원격평생교육원:

<https://edu.csu.ac.kr>
웹사이트:
<http://www.chongshin.ac.kr>



박주정
한국교회대학교 연구교수

용연학교는 지각생이 많았다. 지각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 등교한 것만도 고맙고 다행한 일이었다. 우리는 쉽게 나타난 현상, 규율에 맞지 않는 행동만 보고 판단하는데 조금만 더 학생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생각을 갖게 된다. 이 정도의 환경에서도 아이들이 버티고 견뎌낸다는 사실에 숙연해질 때가 많다.

부모가 없거나, 밤늦게까지 돌아다니 일찍 일어날 수가 없었다.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교직원들 모두가 늦게 오면 늦게 온 대로 받아주고 안아주었다. 아침밥은 대부분 먹지 않고 등교했다.

못하고 있다. 용연학교를 만든 이유도 얼마, 아파처럼 학생들을 대하고, 어떤 경우라도 모두를 안고 가고 싶었던 것이다. 용연학교보다는 용연가족이란 말이 설립 취지에 가까운 의미인 것이다.

수업 중에도 도저히 집중하지 못하면 학교 주위에서 쉬게 했다.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수업하다가도 노래 부를 수 있도록 노래방도 만들어 놓았다. 담배를 끊기가 어려워 쉬어할 때는 지정된 장소에서 피우도록 묵인해 주기도 했다.

사실 처음 용연학교가 들어온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는 지역 주민들의 반

급식실 엄마

우리는 급식실에 테이블을 놓지 않고 옛날 밥상처럼 편하게 앉아 먹게 했다. 가정집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급식실에서 봉사한 여사님은 학생들을 자식처럼 따뜻하게 대하면서 한 명이 라도 더 먹이려고 애를 썼다. 어버이날이었다.

한 학생이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는 이른 아침에 등교해서 급식실을 찾아왔다. 문을 열더니 급식 봉사 여사님을 향해 '엄마'라고 크게 불렀다. 저 학생이 왜 나에게 엄마라고 하지 생각하면서 주변에 누가 있나 둘러봤다고 한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다시 엄마라고 더 크게 불렀다. 여사님은 엄지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니 했더니 그렇다고 했다. 학생은 문을 닫고 가버리고 여사님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여사님의 '엄마 이야기'를 듣고 그 학생을 찾아왔다. 4살 때 엄마, 아빠에게 버림받았고, 조부모에게 전전하다가 거기서도 쫓겨나 시설에서 근근이 용연학교에 다닌 학생이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일까, 엄마 장이 그리워서일까, 엄마 같이 대해주시니 어버이날 급식실에 찾아와 '엄마'하고 불렀던 것이다. 지금도 용연학교를 만들어서 엄마 역할을 해주신 그 여사님을 잊지

대가 매우 심했다. 골목이나 옥상에 올라 담배를 피우고, 학생인지 건달 소년인지 구별이 가지 않는 복장, 두발 등을 보면 주민들 탄탄 할 실상도 아니었다. 학생 생활지도에도 신경을 썼지만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데도 나름 정성을 다했다. 교도소에 가야 하는 나쁜 아이들이 아니라 단지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하고 이 시기만 지나면 훌륭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우리가 예견한 대로 아이들은 용연 학교를 졸업하고 대부분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대학을 갔다. 용연학교 출신이라고 의기소침한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말하면서 자랑스럽게 다닌다고 했다. 상처가 지나가고 새살이 돋는 회복의 과정으로 접어든 것이다. 아이들에게 가장 부족했던 자존감을 높여주고 한 인격체로서 대접해 준다는 용연 가족들의 교육적 결심인 것이다. 수많은 졸업생들이 보내온 글을 보면 버려진 아이에서 관함은 아이로 성장한 자공심이 잘 나타나 있다.

용연학교의 이름처럼 거친 이무기들이 맑은 물에 노니면서 승천한 용이 된 것이다. 청소년기를 되돌아보는 여러 사연 중에서 몇 개를 소개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외무부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광주기독병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사업 선정

광주시 추진 동남권 운영지원 을 1월부터 내년 7월까지

광주기독병원(병원장 이승욱)은 광주광역시 추진하는 '동남권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지원 사업에 선정돼, 2026년 1월부터 2027년 7월까지(1년 7개월) 공공심야 소아청소년 진료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야간과 휴일 등 소아청소년 경증 환자 진료 취약 시간대에 전문 외래진료를 제공함으로써, 보호자의 의료 이용 불편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응급실 과밀

화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의료 사업이다.

광주기독병원은 사업기간 동안 평일과 휴일을 포함해 365일, 자정(24시)까지 소아청소년 환자 외래 진료 및 진료 체계를 운영한다. 진료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구성된 전담 의료진이 맡아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응급실과 분리된 전용 외래 진료시설을 통해 운영됨에 따라, 불필요

한 응급실 이용을 줄이고 환자와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광주기독병원은 앞서 2023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진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기독병원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동남권 지역 소아청소년



광주기독병원이 광주광역시 추진하는 동남권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을 1월부터 내년 7월까지 공공심야 소아청소년 진료 체계를 운영한다.

의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며 "늦은 밤과 휴일에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공공의료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겠다"고 말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농어촌·미자립교회, 군·경 선교 및 기독교 선교기관에

미션21 신문을 보냅니다

‘맑은 크리스천 따뜻한 세상’을 추구하는 미션 21이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각 선교단체, 군부대, 교도소, 소년원 등에 신문 보내기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지역복음화와 크리스천 문화 창달을 위해 복음과 함께 교계의 소식을 담아 매주 발행되는 미션21 신문보내기 운동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2026년 7월 창간 27주년을 맞게 되는 미션21이 이제 문서선교의 보다 넓은 영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CMS에 가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부 월 5,000원, 1년 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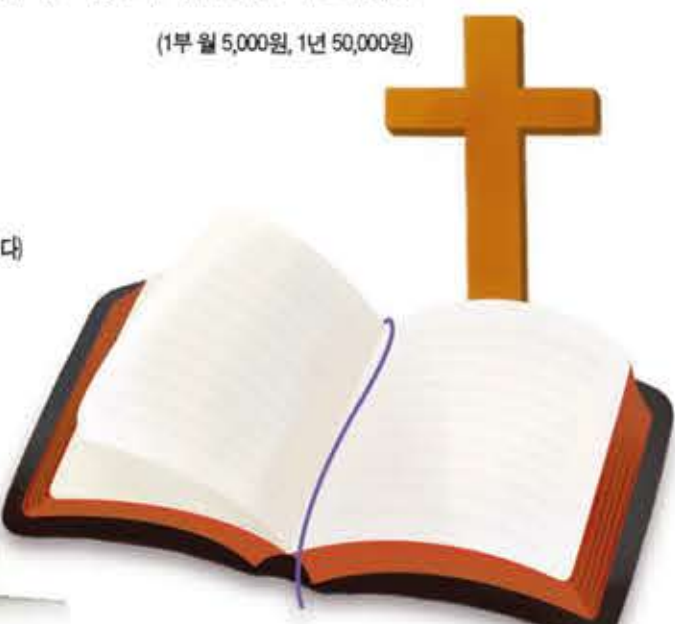
① 정기후원: CMS 가입

- 미션21 홈페이지(ms21.tv)에서 CMS 가입
- CMS 신청서 작성 후 반송봉투에 넣어 신문사로 우송
- ※신문사로 연락주시면 반송봉투가 들어있는 CMS신청서를 자체으로 보내 드립니다

② 일시후원: 계좌이체

- 농 협: 301-0090-0060-71 예금주: (유)미션21

NEWS



작성하신후 휴대전화로 찍어서 카톡이나 메일로 보내주세요. C.P: 010-4002-7824 / e-mail: pn2330@nate.com

미션21 정기구독 CMS 출금이체 신청서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복음 담은 신문 미션21이 군부대, 소년원, 교도소, 도시 및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도서벽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문서선교에 동참해주세요.

신청인 정보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청일자:	
계좌정보	
은행명:	
예금주:	
지정출금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알 6자리만) 또는 사업자번호:	
금액(매월)	☐ 5,000원 ☐ 기타 ()원 ()부
출금일	☐ 5일 ☐ 15일 ☐ 25일 ☐ 기타 ()일
후원기관	☐ 법인 ☐ 기타 ()

위와 같이 출금이체거래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 또는 서명

정통 기독교 주간신문 **미션21**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69 (동신빌딩 3층)
전화: 062367-9109, 364-9109 / 팩스: 062367-9108

◆ 급원가정정보의 제공을위해서 ◆
본 신문에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급원가정정보제공을, 지정된, 제3자에게 급원가정정보를 신원조사하는 목적으로 제공하지 않기로 함을 증명합니다. 급원가정정보 제공을 위해 본인은 급원가정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함을 증명합니다. 급원가정정보 제공을 위해 본인은 급원가정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함을 증명합니다. 급원가정정보 제공을 위해 본인은 급원가정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함을 증명합니다.